

일. 부부 관계 (골 3:18-19)

- ❖ 같은 시기에 기록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부부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(골 3:18-19; 엡 5:21-33).
 -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함 (골 3:18; 엡 5:22-24)
 - (1) 이 말은 상대를 위하여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말하며 (엡 5:21), “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범위 안에 해당 됨”
 -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함 (골 3:19; 엡 5:28)
 - (1)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함. (엡 5:25)
 - (2) 부부는 자신들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있음 (엡 5:29)
 - (3) 서로에게 아픈 상처를 입히거나, 혹독하게 대하거나, 폭력을 쓰거나, 독재자처럼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야 함
- ❖ 부부는 같은 편에 서서 서로 돕고 상의하며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, 남편이 가족의 이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. 또 서로가 상대방의 행복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.

이. 부모와 자녀의 관계 (골 3:20-21)

- ❖ 오늘날의 사회에서 ‘부모’는 정식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. 건강한 가족 관계를 이루는 것은 부모뿐 아니라 자녀들 자신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.
 - 아들과 딸의 책임 (골 3:20; 엡 6:1-3)
 - (1) 자녀들의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
 - (2) 십계명 중 제 오계명에 근거한 것입니다
 - (3)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는 특별한 보상도 받습니다
 - 부모의 책임 (골 3:21; 엡 6:4)
 - (1) 자녀들을 좌절 시키거나, 화를 돋우거나, 짜증나게 만들지 않고 가르쳐야 합니다
 - (2) 조바심을 내거나 변덕스럽게 행동하여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
 - (3)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시오 (신 6:6-7; 잠 22:6)
- ❖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가정 예배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영생을 위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. 또한, 우리의 본보기가 자녀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육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.

삼.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 (골 3:22-25; 4:1)

- ❖ 바울 시대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 존재하는 노예 제도와는 많이 다릅니다.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조언을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.
 - 부하 직원의 의무 (골 3:22-25; 엡 6:5-8)
 - (1)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함
 - (2) 하나님께 하듯, 말은 직무를 뛰어나게 해내려고 노력하십시오
 - (3) 정당한 질책은 받아들이십시오
 - (4) 맡은 임무를 잘 해내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
 - (5) 나쁜 상사에게도 직장의 상하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(벧전 2:18)
 - 상사의 의무 (골 4:1; 엡 6:9)
 - (1) 정의와 의로움으로 직원들을 대해야 함
 - (2) 위협하거나 변덕스러운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
 - (3) 모든 상사위에는 명령을 따라야 할 더 높은 상사가 있습니다
- ❖ 상사와 부하직원 모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중입니다.

사. 교회안에서의 관계 (골 4:2-4)

- ❖ 의인의 기도는 능력 있고 효과적“이기 때문에 “서로를 위해 기도하라“고 말씀하셨습니다 (약 5:16).
- ❖ 바울은 아침과 저녁 기도뿐만 아니라,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(골 4:2; 엡 6:18; 살전 5:17).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황제 앞에서 소리나지 않게 기도했던 것처럼(느 2:4), 우리도 장소나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.
- ❖ 더욱이 성령님은 (연약한) 우리의 기도를 강력한 기도로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(롬 8:26).
- ❖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(골 4:3-4; 엡 6:19). 전도자들의 경험이 많은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아무도 이 사역을 홀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. 바울도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, 형제들에게 자신의 말이 합당한 복음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.

오.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(골 4:5-6)

- ❖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고, 받아들였으며,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.
- ❖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. 우리도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. 바울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(골 4:5-6)?
 - 지혜롭게.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(약 3:17).
 - 친절한 말로s. 언제나 정중한 단어들을 써서 그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 - “소금으로 간을 한” 말로. 그들이 처한 현실에 걸맞는 적절한 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.
 - 그들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함. 사람마다 다르기에, 성령님께서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려 주실 것입니다.